

0829(월) 에스겔 16-18장 바로 너, 돌이키고 살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훈련받아 온 <제사장적> 소양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죄와 부정함, 정함에 예민한 사람입니다(4:14).
에스겔은 죄의 심각성과 섬뜩함을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동시에, 외설적이고 성적인 심상들을 선포해야 할 때면(16/23장)
그 스스로 굉장히 거북하며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자극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여전한 낙관주의와 오만한 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말씀들로 철통같은 맹신’을 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인 그들을 살리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16장).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에 기웃거렸습니다.
정치적/제의적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 이름까지 먹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돔과 사마리아를 멸시하며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 악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16:46-59).

이스라엘은 <간음>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16:15,38-41, 17장).
백성들은 이에 대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항변합니다(18:25).
마치 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양 억울해 하지만,
자녀세대의 죄독들도 부모세대와 동일합니다(18:2,4-9, 19-20).
하나님은 <당사자>의 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18:13).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18:32)”

에스겔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18:21-24,30-32).
그들이 돌이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는 책임과 심판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① 가족이나 환경, 상황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② 누군가를 대신 떠올려 적용하며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